

“우리만큼 고생한 걸그룹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4인조 신인 걸그룹 파란여우들

연습생 5년... 데뷔 무산도 수십 번 '바바' 출신 세 멤버는 두 번째 데뷔 "경쟁 아닌 역경 같이 겪은 멤버들 위로와 용기 주는 그룹 되고 싶어"

“우리처럼 고생 많이 하고 아픔 있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4인조 신인 걸그룹 파란여우들(송이야기·아리아·다야·해나). 이름부터 강렬하다. '파란여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인 '파란색'과 몽골에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인 '여우'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다. "푸른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은 마음"에 멤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었다. '신선함' '꿈' '용기' 등 긍정적인 희망이 담긴 단어를 모두 종이에 써내려가다가 "파란여우들"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저희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4명 모두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콘셉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가 신비로움이었다. 여배우가 신비로움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줄여서 '여우(女優)라고 부르지 않나. 여러모로 딱 맞아떨어졌다.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회사에서 '너희만의 색깔을 만들라'는 조언에 그룹 이름에 색깔을 넣게 됐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도 이보다 좋을 수 없다."(송이야기)

사실 파란여우들이라는 이름에는 이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잊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뜻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반전을 꿈꾸는 것과 같다.

네 멤버들은 저마다 연습생기간만 5년을 보냈고, 그동안 여러 신생 연예기획사를 돌아다니며 데뷔를 코앞에 뒀다가 무산된 게 수십 번이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송이야기,



신비로운 매력으로 중무장하고 데뷔한 4인조 신인 걸그룹 파란여우들. 이들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다야, 해나 등 세 멤버가 '바바'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생겨 그룹에서 나오게 됐다.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KBS 2TV) '뮤직뱅크'에 7주 연속 출연했고, 신인은 출연하기 쉽지 않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도 출연했다. 언제부터인가 방송 대신 행사 위주로만 무대에 올랐다. 아픔 많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우리뿐이겠나. 하지만 우리가 '행사 전문'으

로 전락한 것 같았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의상 문제 등으로 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 우리가 입던 사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문제가 커지면서 심한 노출까지 하게 됐다."(다야)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지만, 짧은 활동 기간에 느꼈던 찰나의 행복과 추억을 절대 잊을 수 없고,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솔직히 데뷔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자는 생각뿐이다. 이번엔 잘되고 싶다. 아니 꼭 그래야 한다."(해나)

세 멤버들과 뜻이 맞아 뒤늦게 팀에 합류한 아리아는 "이질감대신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왔던 가족같이 편안하다. 팀워크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 느낌이 좋다. 꼭 성공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력 면에서도 모든 것을 갖췄고,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마련됐으니 이제 자신들이 가진 매력을 모두 드러내는 일만 남았다. "이제야 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말에 설렘과 행복이 엮여 있었다.

"저마다 아픔을 겪어서인지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 멤버들끼리 마음도 잘 맞아서 어떤 시련이 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너무나 재미있다."(다야)

파란여우들은 출발이 좋다. 멤버들의 전문력도 최대치이고, 무엇보다 하나로 똘똘 뭉쳐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팀워크와 4인 4색의 매력이 최대 장점이다.

"멤버들이 태어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멤버가 다 다르다. 혈액형도 A, B, O, AB형으로 제 각각이다. 성격과 매력이 달라 노래 해석하는 것도 다르다. 저마다의 취향을 존중해서 노래를 해석한 대로 표현하는 맛이 있다. 틀에 박힌 콘셉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힘든 역경을 같이 겪은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는 것도 우리만의 장점이 아닐까. 친자매처럼!"(송이야기)

최근 발표한 데뷔 음반은 이들의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타이틀곡 '웨이크 미 업'과 '아이 발리브 아이 캔 플레이'는 이들의 반전매력으로 어필하기 충분한 곡이다. '웨이크 미 업'은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스토리를 차용해 만든 노래로 뉴이스트, 라붐 등의 노래를 통해 잘 알려진 작곡팀 어벤전송의 곡이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파란여우들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파란여우들은 2일 KBS 2TV '뮤직뱅크'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송활동에 나선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자신 있다. 꼭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우리도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다른 선택으로 더 후회할 나 자신을 볼 자신이 없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다야)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엑소

엑소, 5집 전주만 110만 장 돌파

2일 발표되는 그룹 엑소 5집이 전주만 110만 장을 기록했다. 10월3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 5집 '뎀트 메스 업'이 '뎀트'는 전주만 수량만 110만4617장(10월30일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엑소는 1집부터 4집까지 정규 앨범 4장 연속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해 '퀵드러플 밀리언셀러'에 오른 바 있고 이번 5집은 전주만 만으로도 110만장을 기록해 발매 전부터 5장 연속 100만장을 돌파하며 '퀵드러플 밀리언셀러' 등극을 예고했다. 엑소는 2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韓 드라마·예능 북미 진출 업무 협약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이 북미 안방극장을 찾아가고 있다. KBS·MBC·SBS 등 국내 지상파 3사가 미주에 설립한 코리아 콘텐츠 플랫폼(KCP)이 10월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컴캐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컴캐스트는 북미 최대 케이블TV 업체다. KCP는 컴캐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한류 콘텐츠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KCP의 한류 콘텐츠 서비스 코코와는 11월 컴캐스트에 론칭한다. 3000만 미국 일반 가정에 지상파 3사의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VOD로 선보일 예정이다.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연임 성공 '3년 더'

양승동 현 KBS 사장이 제24대 KBS 사장으로 내정됐다. KBS이사회는 10월31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회의실에서 김진수·양승동·이정옥 후보자 3인에 대한 최종 면접 후 이같이 결정했다. 4월 취임한 양 사장은 앞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11월23일까지)를 수행중이다. 양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사장직을 이어가게 된다. 임기는 24일부터 3년간이다. 양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화 김동완

김동완, 1인 기획사 설립 '홀로서기'

신화 김동완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다. 김동완은 10월31일 CI ENT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으며, 1인 기획사 설립으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다. 10월 서울과 대만에서 신화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김동완은 뮤지컬 '젠트맨스 가이드'에 캐스팅 돼 뮤지컬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동완은 2014년 CI ENT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 '글로리아' '시선 사이', tvN 단막극 '소풍 가는 날', MBC '나 혼자 산다', tvN '외계통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고 유재하의 '지난날' 뮤직비디오

고 유재하 '지난날' 뮤비 연말 공개

고 유재하의 '지난날' 뮤직비디오가 연말 공개된다. '지난날' 뮤직비디오는 홀로그래프로 다시 태어난 유재하가 31년 전 함께 음악을 했던 송홍섭 정영원 김종진과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스윗소로우, 이준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담는다.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단 하나의 방송출연 영상을 참고해 유재하 얼굴 표정, 손동작, 몸짓을 CG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루빈이 유재하 대역으로 몸 연기를 맡았다. 유재하 목소리만 추출해 제작한 밴드버전의 '지난날 리버스'도 연말 발표된다.